 <p>중국전문가포럼</p> <p>http://csf.kiep.go.kr/</p> <p>2019. 03. 08.</p>	<p>「이슈&트렌드」</p> <p>중국, 민영기업 금융서비스 강화 조치 발표</p> <p>작성 오윤미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)</p>
--	---

-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‘민영기업 금융 서비스 관련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(关于进一步加强金融服务民营企业有关工作的通知)’를 발표함.
- 이번 문건에서는 민영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금융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업은행, 보험 기관, 금융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23개 시행 항목을 제시

표 1. 민영기업 금융서비스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

시행기관	주요 내용
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형 상업은행: 포괄적 금융 사업부 건설 지속 강화, 5전(专)* 경영 메커니즘 수행 · 중형 상업은행: 포괄적 금융 사업부 설립 장려, 포괄적 금융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· 매년 초 민영기업 서비스 연간 목표 설정, 민간기업 융자 업무 성과를 감안한 인센티브 지급 · 대출 승인에 있어 △민영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구 설정 금지 △동등 조건하 민간기업과 국유기업 대출금리와 조건 동일하게 설정하여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 제고 · 민영기업 융자 수요 특성에 따라 인터넷,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한 개성화 상품 설계 · 대출 과정을 관통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 강화해 대출자금이 민영기업과 실물경제 지원에 쓰이도록 유도. 유용, 차익거래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와 新리스크 형성 대비 · 3월 말까지 2019년 민영기업 서비스 목표 수립 · 2019년 중소·영세기업 포용적 대출 전체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되도록 확대
보험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합서비스 수준 향상, 민영기업 자금조달에서 대출·보증·보험서비스 제공 통한 신용증대 지원
은행보험관리 감독위원회 및 파견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영은행의 상시화 발전 추진, 명확한 포지셔닝과 민영 중소·영세기업 수요에 맞는 금융 서비스 체계 건설 가속화 · 지방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금융, 세무, 시장 감독, 사회보험, 세관, 사법 분야의 기업 신용 정보를 통합하고, 지역 차원의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정보 자동 수집, 검색 및 실시간 갱신(업데이트) 강화 · 2019년 2월 말까지 민영기업 대출 통계 기준(口径) 수립, 민영기업 대출 상황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, 관리 감독 및 심사를 강화, 신규 대출에서 민영기업 대출의 비중 제고 시키는 한편 융자(자금조달) 비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 · 감사를 통한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정책 시행의 상황 감독 및 점검

주: 5전(专)은 ‘전문적인 △통합서비스 △통계산출 △리스크관리 △자원배치 △고과평가’를 의미함.
 자료: 저자 정리.

- 이번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강화 조치 시행의 배경은 중소·영세기업의 △유동성 문제 해결 △민영경제 활성화 촉진 등이 있음.

- 중국의 민영기업은 자금조달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디레버리징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담보나 실적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민영 중소·영세기업은 은행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그림자금융 이용이 불가피하는 등 자금조달의 한계 직면
- 금융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 중국 정부의 기존 디레버리징 정책은 리스크 통제를 통한 그림자금융의 위축과 함께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환경도 악화

그림 1. 국유 및 민영기업 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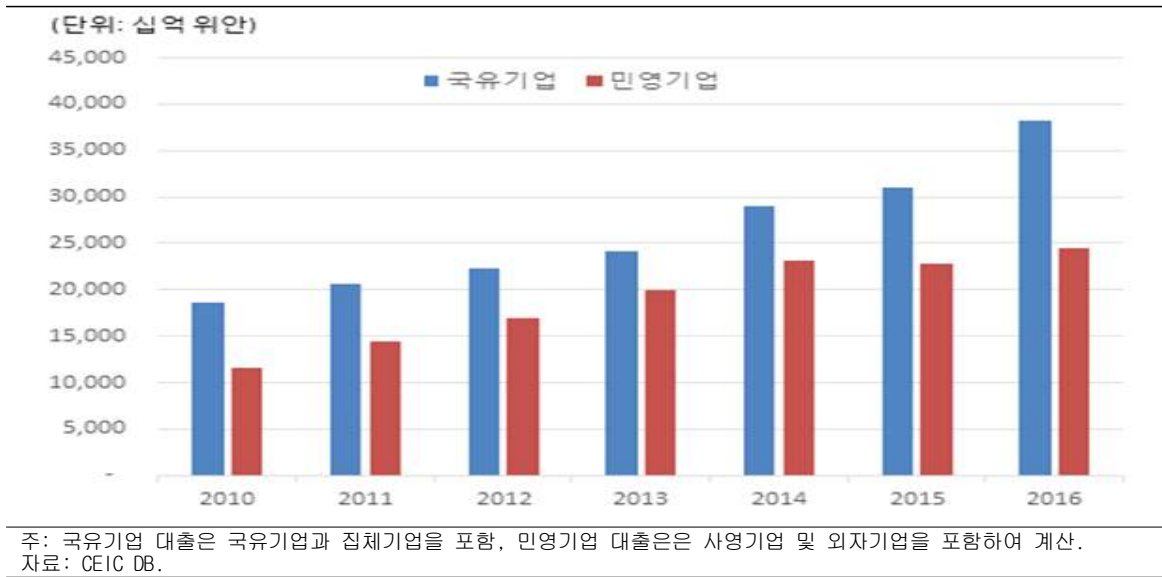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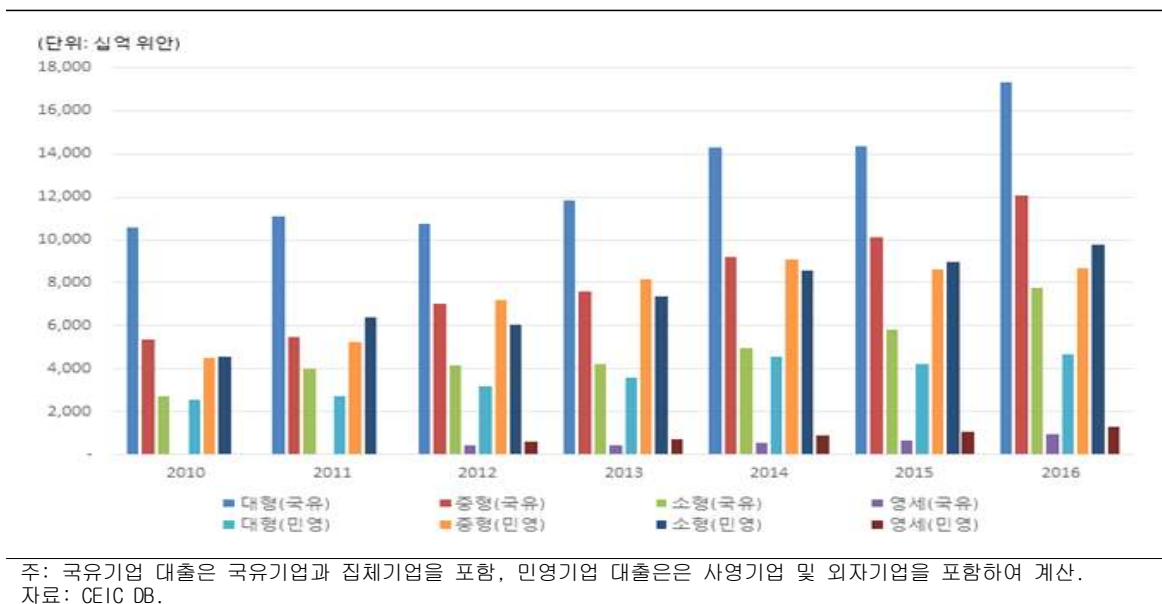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기업규모별 대출 추이 비교



- 중국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경기둔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민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, 2018년 하반기 민영기업 유동성 문제 해결 등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 및 계획 발표

- 시진핑 주석은 11월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△감세 △융자난 해소 △기업가 재산보호 등을 비롯한 민영기업 지원 6개 방안 제시
- 인민은행은 △대출, 채권 발행,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한 민영기업 자금조달 지원 계획을 밝혔고, △주요 시중 상업은행의 4분기 민영 중소기업 신규대출 금리의 1분기 대비 1%p 인하 △중기 대출 지원창구 (MLF) 적격 담보품 범위 확대 등의 조치 발표
-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비율 확대 계획 표명,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과학 혁신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위해 커창판(科创板) 신설

□ 경기둔화 국면에 직면한 중국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점을 경기부양 측면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평가되며, 향후 관련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.

- 중국은 기업 부채 축소, 그림자금융 규제, 과잉 공급 해소 등 구조개혁과 리스크 관리 등 감독 강화에 집중하여 정책을 추진했으나, 최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경기부양책 모색에 집중

- 민영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△개인 및 기업 소득세 인하 △수입 확대 △서비스 개방 △新전자 상거래법 △자동차·가전·농촌 소비 진작 조치 등 추진

- 향후 민영기업 지원 및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각 부처·기관의 관련 조치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

- 민영기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 조치에 따라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외자 기업 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- 다만, 관련 정책에 따른 지원 조치가 외자 기업을 포함하는 민영기업에게 확대되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 CSF

참고자료

中国政府网, 金融界, 人民网, 第一财经, REUTERS, CSF, 국내 언론사 등